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1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87.35원 (+4.85원)

KOSPI
5,808.62 (-50.25, -0.86%)

KOSDAQ
1,099.84(+6.21, +0.57%)

국고채 10년 금리
3,715(+0.02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미국 우주테크: 패시브 & 액티브 [박승진]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디테일한 변화의 활용 [박승진]
Doo It Now	협상은 흔들려도, 시장은 실적을 본다 [김두언]
주간 하나채권	[4월 3주] 양호한 성장 속 금리 반등을 경계 [박준우]

기업분석

우리넷	전송장비 주도주인데 PBR 1.7배? [김홍식]
인벤티지랩	NDR 후기: 고농도 SC제형화 플랫폼 및 CDMO 확장 [김선아]
대한항공	1Q26 Re: 단기 실적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때 [안도현]
티앤엘	핵심 고객사 재고조정 끝, 지역 및 고객사 확대 수혜 [김다혜]

산업분석

통신 장비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홍식]
Weekly	
건설	단기 변동성 심화, 장기 방향성 견고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HANA US Weekly]	미국 AI 인프라(IT 하드웨어)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 기대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삼성E&A, 삼성증권, 동국제강, KSS해운, 리노공업, 대성하이텍, 우리넷

하나증권

2026년 4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미국 우주테크: 패시브 &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4/14)
- TIGER 미국 우주테크, ACE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우주 테마: 우주 분야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 영역이다. 정부의 정책 모멘텀과 더불어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을 목표로 SpaceX의 상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ETF 시장에서도 우주 테마 종목군이 늘어나고 있다.

방산업과 결합되어 있는 기존 우주항공 종목들 외에도 지난 연말부터 '1Q 미국우주항공테크(상장일: 2025/11/25)', 'KODEX 미국우주항공(상장일: 2026/3/17)'이 상장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종목들이 우주항공 ETF 라인업에 추가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테마 ETF들처럼,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에 따라 수익률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TIGER 미국 우주테크: 우주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우주 산업 밸류체인을 우주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제조, 발사 영역의 업스트림(Upstream)과, 우주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지상에서 활용하는 영역의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분류하여 관련 기업들을 편입한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7개,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3개 종목을 선별하여 10개 기업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 종목이 되겠다. 지수방법론의 기준에 따라 SpaceX가 상장될 경우, 리밸런싱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25%)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동성 요건(시가총액 5억달러↑, 평균 거래대금 백만달러↑)을 충족시키는 미국 상장 종목 가운데 '항공우주 제품 및 부품 제조업', '위성 통신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우주 연구 및 기술' 섹터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상기 유니버스 종목들에 대해 'Upstream Space Industry', 'Downstream Space Industry'의 키워드를 활용한 LLM 모델 스코어링 작업을 거쳐, 최소 하나의 키워드 절대 점수가 1인 종목을 걸러낸다.

'Upstream' 유사도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을 1등급, 2~4위 기업은 2등급으로 분류하고, 'Downstream' 유사도 순위 상위 3개 종목은 3등급을 부여한 후, 다시 'Upstream' 키워드 유사도 기준 차순위 3개 종목들에 대해 4등급을 부여하여 총 10개의 최종 편입 대상을 선별한다. 1등급 부여 기업은 25%, 2등급 15%, 3등급 7%, 4등급 3%로 개별 종목들의 편입 비중을 할당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상장일(4/14) 기준의 포트폴리오에는 Rocket Lab, Intuitive Machines, Redwire, AST SpaceMobile, Planet Labs, EchoStar, Globalstar, Voyager Technologies, Karman Holdings, Firefly Aerospace가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종목 선정, 이후 3영업일 장 종료 후에 리밸런싱)에 걸쳐 진행한다. 총 보수는 0.49%가 적용된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CE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우주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이다. 항공 및 방산 기업들을 제외한 순수 우주 밸류체인 기업들을 편입하는 ETF 종목으로, 액티브 형태의 운용 방식을 통해 상대적인 유연성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겠다. SpaceX 상장 이후 신규 편입 여지를 반영 중인 동시에, 지분 보유 기업들이나 ETF를 활용해 미리 포지션을 잡는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다.

비교지수인 'FnGuide 미국 스페이스테크 지수'는 유동성 요건(시총 3억달러↑, 평균 거래대금 천만달러↑)을 충족하는 미국 증시(NYSE, NASDAQ) 상장 기업들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이어 우주테크 기업들 중 '로켓 발사체 및 탐사선 기업'과 '위성 제작 기업'을 Tier1 종목군으로, '로켓 발사체 및 탐사선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위성 데이터 및 인프라 활용 기업'을 Tier2 종목군으로 분류한 후 Tier 별로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다. Tier1 종목군에 대한 '로켓 발사체 및 탐사선, 위성 제작' 관련 키워드 유사도 스코어링을 통해 상위 2개 종목을 선정하고, Tier2 종목군에 대해서도 상기 키워드 유사도 스코어를 산출한 후 시가총액 기준(각각 50%)을 함께 반영하여 최대 13개 종목을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SpaceX가 증시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Echostar, Alphabet, Tesla 등 SpaceX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편입하여 간접적인 포지션을 구축한다. ETF 상장일(4/14) 기준의 포트폴리오에는 Echostar, Rocket Lab, Alphabet, Tesla, Planet Labs, AST Spacemobile, MDA Space, Redwire, Globalstar, Palantir 등의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다. 액티브 ETF인 만큼 SpaceX가 증시에 상장되면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재점검 과정을 거쳐 편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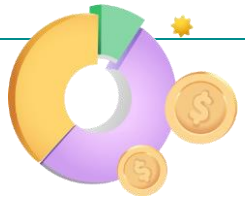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비교지수의 리밸런싱은 매년 4회(종목 선정: 2월/5월/8월/11월의 마지막 영업일, 비중 및 종목 변경일: 3월/6월/9월/12월 옵션 만기일 이후 2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0.8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도표 1. TIGER 미국 우주테크, ACE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TIGER 미국우주테크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상장일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Akros U.S. Space Tech 지수	FnGuide 미국스페이스테크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49%	0.80%
구성종목 수	10종목	15종목
비중결정방식	키워드 유사도 순위별로 편입 비중 할당 - 1등급(Upstream 유사도 1위 종목): 25% - 2등급(Upstream 유사도 2-4위 종목): 15% - 3등급(Downstream 유사도 1-3위 종목): 7% - 4등급(Upstream 유사도 5-7위 종목): 3%	키워드 유사도 순위별로 편입 비중 할당 후 나머지 종목에 대해 동일 가중 방식 적용 - Tier1 상위 2종목: 각 15% - Tier2 상위 2종목: 각 10% - 나머지 종목: 50%를 동일 비중으로 배분
정기변경	연4회 (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째)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옵션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째)

자료: KRX,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4.13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디테일한 변화의 활용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지속. 변동성의 정점 통과 기대 반영한 대응: SMH/DRAM, PAVE, QUAL, QGRO와 USO/DBA, DIVO/QD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주식시장 중심의 대규모 자금 유입 영향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과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274.8억달러, +87.3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에 총 +355.5억달러의 투자자금이 순유입되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고, 신흥국 ETF 시장의 경우 주식형 ETF 시장으로 +34.7억달러가 유입되었으나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4주만에 자금 유출이 재개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주중에 휴전 기대가 형성되었던 상황에서 저가 매수성 자금이 주식형 ETF 시장으로 유입되었던 모습이 확인되었다. 대표 주가지수형 ETF들인 VOO/SPY/SPYM(S&P500)에 총 +145.2억달러가 유입된 한편, 글로벌 반도체 기업 ETF인 SMH와 소프트웨어 기업 ETF인 IGV, 미국 운송 섹터 ETF인 IYT가 나란히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초단기국채 ETF인 SGOV와 BIL, 단기국채 ETF인 SHY, 중기회사채 ETF VCIT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AGG(US Total)와 VGIT(중기 미국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유출되었다. 원자재 ETF 종목군에서는 GLDM과 IAU, GLD와 같은 금 ETF 종목군과 원유 선물 ETF인 USO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재개되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종목군의 경우 IBIT와 FBTC에 +3.1억달러 가량의 자금 유입이 확인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휴전과 종전 기대가 형성되었다가 확전 우려가 재개되고, 다시 되돌려놓는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은 각자의 명분과 정치적 이해관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및 봉쇄 조치를 통해 서로를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걸프 국가들의 인프라 시설의 훼손 여부가 확인되기에 앞서, 물리적인 물류 제한 상황이 유가와 금리를 끌어 올리면서 유동성 우려로 연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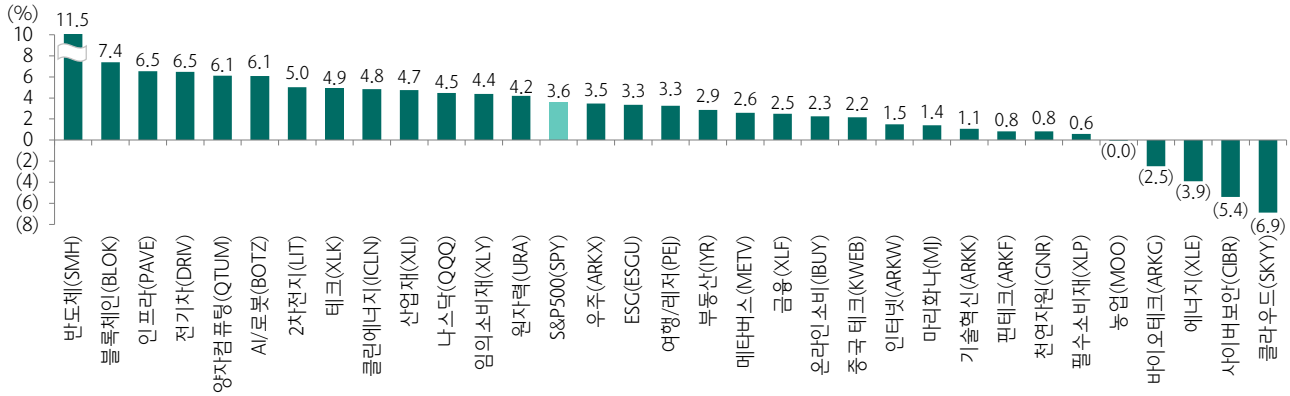
- 지난주 확인된 미국의 3월 CPI에 이어, 금주에는 3월 PPI와 수출입물가 데이터가 확인될 예정이다. CPI에서는 예상대로 에너지 가격이 전월대비 +10.9%를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전년대비 상승률은 지난 2월의 +2.4%에서 +3.3%까지 높아졌다.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에도 Headline과 Core 항목 모두 전년대비 +4.6%, +4.1%의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물가지수 역시 지난 2월의 전년대비 +1.3%에서 +3.9%까지 급등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우려와 시차를 둔 후행적 반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근원 CPI가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일부 되살아날 수 있는 물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파급효과의 지연 현상과 수요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

- 금주부터 기업들의 1분기 실적발표 시즌에 진입한다. Goldman Sachs(4/13)를 시작으로, JP Morgan/Wells Fargo/Citi/Blackrock (4/14), BofA/Morgan Stanley(4/15) 등의 주요 IB들이 실적을 내놓는다. 주중에는 ASML(4/15)과 TSMC(4/16)의 분기 실적 발표 일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TSMC는 이미 3월 및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난주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견고한 수요 기반을 살펴 볼 수 있었던 만큼, 할인율(금리) 상승 부담을 성장으로 상쇄시키는 분위기 전환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 ETF 포트폴리오는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SMH/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X/NASA(우주항공), 현대화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방향을 고려한 SHLD(방산테크)/KDEF(한국방산),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유도 및 대체 관세와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MADE(제조업),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QUAL/SPHQ(퀄리티)와 QGRO(퀄리티성장) 등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 변화에 따라 USO(원유선물), DBA(농산물 선물), UCO(원유 2배)/SCO(원유 -2배) 등의 ETF들도 헷지 관점에서 적절한 활용이 가능한 종목들이 되겠다.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점 통과 및 변동성 감소 기대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4.6~4.10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4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협상은 흔들려도, 시장은 실적을 본다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RA 김민근 minkeunkim@ hanafn.com

(결론적으로) 협상 결렬은 **단기 악재다. 그러나 휴전의 틀과 대화의 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핵심 변수는 유가다. **국제유가(WTI) 115달러 이상 구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2분기 위험자산의 훼손 정도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그 선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초점은 **다시 경기와 실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적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반도체**가 있다.

이란-미국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다. 핵 포기, 호르무즈 주권, 경제제재 등에 이견이 있었다. 다만 이를 파국의 확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번 회담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약 50년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이었다. 양측은 즉각적인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대화 채널 자체를 끊지는 않았다. 지금 국면은 **강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라기보다, 누가 더 오래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느냐의 게임**에 가깝다.

이 변화는 금융시장에도 이중의 함의를 만든다. 한편으로는 휴전과 복구, 공급 정상화, 전후 재건을 선반영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길어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한국은행도 4 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 중동전쟁이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을 함께 키우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2 월 전망치 2.0%를 밑돌 수 있고, 물가상승률은 2.2% 전망을 상당폭 웃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 분기의 핵심은 방향보다 임계치다. **협상 결렬 이후 시장 되돌림은 불가피**하다. 다만 최악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다. 국제유가(WTI)는 주간 기준으로 13.4%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큰 부침 이후에 빠르게 반등 했다. 아직 시장이 상정하는 극단의 공포 구간이 고착된 것은 아니다. 하나증권은 WTI 115 달러 이상 구간이 장기간 이어질 때 비로소 한국 증시에 대한 판단을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3/10, 유가의 시간, 증시의 방향 참고). 그 전까지는 충격의 존재와 추세 훼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이목은 이미 경기와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3 월 수출은 861 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328 억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51.4%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반등만이 아니라 물량과 가격이 함께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금은 서사보다 숫자로 이동한다. 지금 가장 선명한 숫자는 반도체다.

삼성전자의 1 분기 잠정실적(매출 133 조원, 영업이익 57.2 조원)은 그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개선이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후 SK 하이닉스에 대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향됐다. **실적 시즌 초입부터 반도체 이익 컨센서스가 위로 열리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계선도 분명하다. D 램 현물가격은 숨을 고르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DR4 1Gx8 3200MT/s 현물가격은 일주일 동안 1.18% 하락(33.96 달러 → 33.56 달러)했다. 현물 둔화는 수요 피로와 유통 재고 조정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동시에 트렌드포스는 2 분기 일반 DRAM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63% 오를 것으로 봤다. **현물은 흔들리지만 본류인 계약가격은 아직 강하다**. 결국 현물 둔화가 일시 조정에 그칠지, 업황 둔화의 시작으로 번질지는 전쟁의 지속성과 에너지 비용 충격의 길이에 달려 있다.

여기서 게임이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게임이론적으로 이번 국면은 치킨게임이자 소모전이다. 협상은 흔들릴 수 있다. 발언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파국을 뜻하지는 않는다. 양측 모두 강경함을 보여야 협상력이 생기지만, 파국의 비용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충돌과 결렬이 반복되더라도 **실제로는 출구를 열어두는 전략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흔들려도, 가격의 극단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WTI 가 배럴당 100 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시장은 늘 사이클의 끝을 먼저 찾는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완전히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 가트너는 2026 년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1.3 조달러를 넘고, 증가율은 64%에 이를 것으로 봤다. 동시에 DRAM 가격은 연간 1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과거 메모리 업황은 서버와 PC, 모바일 수요의 순환이 핵심이었다. 이번 사이클은 AI 인프라라는 새로운 축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길다는 이유만으로 끝을 선언하기 어렵다.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전략은 분명하다. 협상 결렬은 되돌림의 이유다. 그러나 WTI 115 달러 이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정은 실적 중심 재편의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2 분기는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다(4/7, 금융시장의 시간은 전쟁의 시간보다 짧다 참고). 선택지는 여전히 실적이 보이는 곳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2026년 4월 13일 | Global Macro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4월 3주] 양호한 성장 속 금리 반등을 경계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		
미국		■	●		

주: 3월 23일 기준. ●는 직전 전망

- 지난주 위험자산의 강한 회복은 휴전 뿐만 아니라 양호한 성장 추세 덕분
- 유가 불확실성 크고 침체 신호 부재한 상황에서 금리 반등 리스크 경계. 축소 의견 유지
- 한국은 여느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리에 연동되는 장세. 일본은 예외

Weekly Viewpoint

지난주 미국-이란의 2주 휴전으로 유가 및 달러가 하락하고 그 외 자산은 대체로 상승했다. 채권보다 주식의 반등이 더 강했고, 달러 약세로 신흥국 로컬 채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 부통령과 이란 의회 의장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는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나섰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므로 시장은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겠으나,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유가 충격 중 지금과 유사한 사례는 1990년이다 ('3/31, 5번의 유가 쇼크…' 참고). 그러나 당시와 비교하면 유가 상승, 금리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 폭이 모두 작다 **[도표 1~3]**. 특히 주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애초에 주가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고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HY 크레딧 스프레드는 전쟁 직전 수준을 하회). 이는 단순히 전쟁 리스크 완화 때문이 아니라, 1990년 대비 경제/기업 펀더멘털이 견조한 영향도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미국 기업의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 500 기업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22%를 넘어섰다 **[도표 4]**. 1990년에 기업 이익이 역성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며, 실업률 상승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연히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이란 사태 이전 2월에 이미 개인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고유가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수록 소비에 타격이 예상된다.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급락했다 (3월 53.3→4월 47.6). 그러나 주간 레드북(4/7 +7.6%), 주간 실업수당(4/9 219k [도표 13]), 주간 ADP 고용(4/7 +26k [도표 14]) 등 하드 데이터가 양호하며, 상기한 바와 같이 주가와 크레딧 스프레드에서도 경기 둔화 신호는 미약하다.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환경에서 금리 하락이 지속되기 어렵고, 그 전에 연준의 긴축 리스크에 따른 금리 상승**이 재현될 수 있다.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여전히 금리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지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두는 위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쟁 및 유가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금리 추가 하락은 (1) 이란 사태 진정으로 유가가 하락하거나, (2) 연준의 긴축 리스크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돼야 한다. 어느 시점에는 유가 안정으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첫번째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직 둔화 리스크는 커지는 신호가 미약하다. 금리 방향성이 뚜렷하기보다 변동성만 클 가능성이 높다. 미국 10년 금리의 상단을 4.50%로 제시하며, 투자의견 축소를 견지한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한국 금리는 총재 교체(4/21 취임 예상), WGBI 편입(4/1~10 외인 국고 순매수 27.7조원), 추경(4/10 26.2조원 국회 의결) 등 여러 고유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글로벌(미국) 금리에 연동되는 시기다.

예외는 일본이다. 지난주 미국-이란 휴전으로 주요국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 금리만 4월 인상 가능성 확대에 상승했다. 2월 실질 금리가 전년동월비 +1.9% 상승하면서 BoJ가 인상의 조건으로 제시해온 임금-물가 선순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개별 국가 요인이 통화정책 경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면 대외 요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현재 원화 선도금리에는 1~2년 내 약 3회 인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쟁/유가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가 남아있는 환경에서 한국의 인상 리스크도 완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상 리스크가 완화되기 이전에 3년 금리가 현재 3.3%대에서 3.50% 수준으로 반등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채에 대해서도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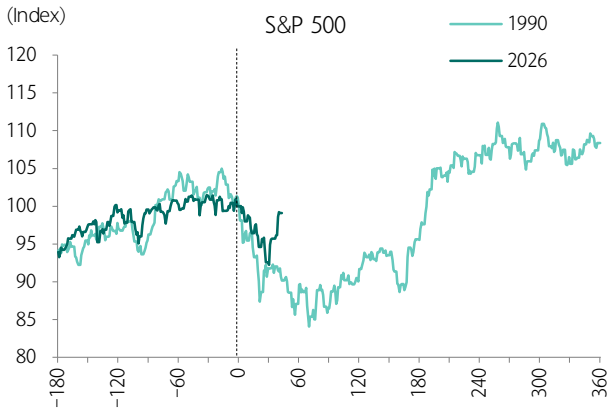
도표 1. [1990년과 2026년] 유가
: 현재까지는 유가 상승 폭이 당시보다 낮음

주: x축은 D-day,1990년 8월 2일, 2026년 2월 28일이 기준. 이하 동일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1990년과 2026년] 미국 10년 금리
: 금리 상승 폭도 더 작음. 다만 당분간 변동성 국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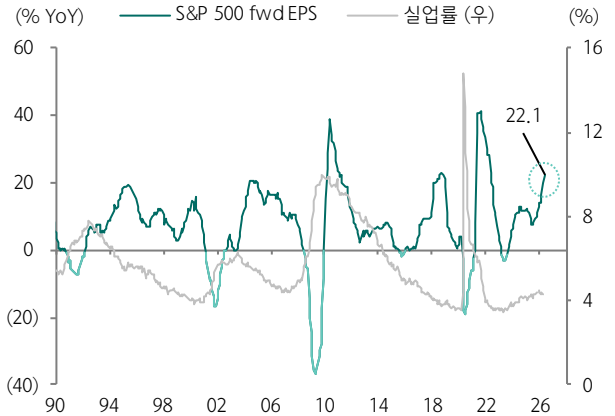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1990년과 2026년] S&P 500
: 주가 하락이 제한적. 이는 경제/기업 펀더멘털이 훨씬 양호하기 때문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S&P500의 이익 전망과 실업률
: 이익 전망 꾸준히 개선. 이는 실업률 상승 리스큰 낮추는 요인



자료: LSEG, 하나증권

2026년 04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우리넷 (115440)

전송장비 주도주인데 PBR 1.7배?

BUY (유지)

목표주가(12M)	25,000원(상향)
현재주가(4.13)	16,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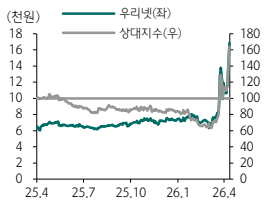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99.84
52주 최고/최저(원)	16,900/6,170
시가총액(십억원)	182.4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0,794.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78.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7
외국인지분율(%)	4.18
주요주주 지분율(%)	
넷솔루션즈홀딩스	26.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15.8	136.6
영업이익(십억원)	8.5	11.8
순이익(십억원)	8.2	11.9
EPS(원)	760	1,102
BPS(원)	10,037	11,09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31.6	75.5	115.8	136.6
영업이익	20.1	1.9	8.7	21.7
세전이익	21.0	3.8	8.9	22.4
순이익	20.4	3.7	7.2	19.3
EPS	1,895	340	669	1,787
증감율	197.96	(82.06)	96.76	167.12
PER	4.62	21.32	25.26	9.46
PBR	0.98	0.80	1.74	1.48
EV/EBITDA	2.86	17.77	16.95	6.99
ROE	24.05	3.91	7.40	17.50
BPS	8,884	9,091	9,712	11,452
DPS	100	50	50	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우리넷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5,000원으로 상향

우리넷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한편 목표주가를 25,000원으로 상향한다. 1) 과거 장비주 수급 양상을 감안하면 현재 전송장비 주도주가 상승할 시점이고, 2) 경쟁사 대비 우리넷 M/S, 이익률, 수급을 감안하면 우리넷이 전송장비 주도주라고 판단하며, 3) 각 분야별 후발주가 최근 1달새 주가 급등을 보이는 모양새를 감안하면 이번 상승장에서 선발주의 주가 상승은 2019년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고, 4)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리넷 PBR이 전고점 수준이라고 고평가된 것은 아니며 멀티플 리레이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타겟 PBR을 2.5배로 조정하여 목표주가를 25,000원으로 상향한다.

우리넷 주가, 올라야 할 때가 되니 오른 것 뿐입니다

최근 우리넷 주가가 급등했다. 올해 1분기까지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던 터라 갑작스런 주가 상승으로 오인하는 투자가들도 있겠다. 하지만 과거 통신장비 주가 양상을 보면 전형적인 주가 상승 시점으로 보인다. 2019년 5G 양상을 보면 통신장비주 수급은 무선 기지국 주도주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 주파수 음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빌딩 장비가 각광을 받았고, 각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전송/유선 장비가 상승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트래픽으로 인한 장비 투자가 서버에서 시작된 것 뿐 이다. RF머트리얼즈 주가 상승이 그렇다. 일부 투자가들은 최근 투자 테마가 서버나 광이기 때문에 통신에 연결하면 안된다고 호도하지만, 본질은 데이터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통신망 투자이기에 단순히 광이나 서버로 수급을 해석해선 안된다. 망 투자 논리에 따라 이후 RFHIC/KMW 주가가 상승했고, 최근에는 오이솔루션에 이어 쏠리드와 유비쿼스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수급상 전송장비 주도주인 우리넷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후발주보다 못한 선발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넷 PBR이 전고점 수준이어서 더 이상 상승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다. 하지만 선발주와 후발주의 수급 양상을 감안하면 아직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최근 무선장비 후발주의 주가도 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최근 1달간 상승세가 우리넷이나 유비쿼스 상승세를 넘어섰다. 게다가 전송/유선장비 후발주도 같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과거 후발주는 선발주 주가 상승이 끝난 후 올랐다. 향후 5G SA에서 6G까지 역대 최대 규모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힌트가 나온다. 즉, 주도주 위주의 상승장이 끝난게 아니라, 역대 최대/최장 규모 이벤트가 있는만큼 수급이 후발주로 확산되는 모양새이며, 선발주는 더 큰 상승 여력을 보유한 셈이다. 우리넷이 M/S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송장비 주도주로 봐야하며, 각 하위섹터의 후발주가 현재 상승한 것 이상은 상승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아직 우리넷 주가는 상승 초입이다.

2026년 04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인벤티지랩 (389470)

NDR 후기: 고농도 SC제형화 플랫폼 및 CDMO 확장

Not Rated

현재주가(04.13) **60,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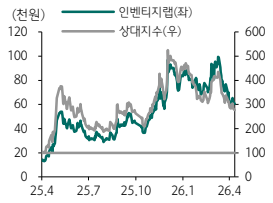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99.84
52주 최고/최저(원)	99,500/17,000
시가총액(십억원)	803.3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13,277.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93.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8
외국인지분율(%)	4.21
주요주주 지분율(%)	
김주희 외 3 인	13.5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	4	1	2
영업이익	(10)	(11)	(16)	(19)
세전이익	(9)	(11)	(27)	(19)
순이익	(9)	(11)	(27)	(17)
EPS	(1,376)	(1,457)	(3,145)	(1,815)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6.7)	(5.5)	(11.7)
PBR	0.0	2.7	34.7	6.6
EV/EBITDA	0.0	0.0	0.0	0.0
ROE	(35.0)	(34.8)	(612.0)	(52.2)
BPS	3,713	3,644	502	3,223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고농도 SC제형화 플랫폼 추가

동사의 주요 플랫폼은 1) 펩타이드 및 저분자화합물/마이크로스피어/주사제인 IVL-DrugFluidic, 2) 유전자/LNP/주사제인 IVL-GeneFluidic인데, 여기 3) 항체/마이크로스피어/SC주사제인 IVL-BioFluidic을 추가하였다. '25년 상반기에 경구 플랫폼도 공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플랫폼 고도화 중이다. 모두 공통적으로 Microfluidic 방식으로 입자를 생산한다. 이번 NDR을 통해 공개된 IVL-BioFluidic은 항체의약품을 초고농도의 입자로 농축하여 2.5ml 이하의 주사액으로 PFS로 피하주사 가능토록 하는 기술이다. 안정성 높은 건조 분말 형태이므로 콜드체인이 필요 없어 유통비 절감, 상온 보관 가능한 장점도 갖는다. Halozyme이 '25년 10월에 인수한 Elektrofi(인수 후 사명을 Halozyme Hypercon으로 변경)의 기술인 Hypercon이 이와 유사한 기술로써, '26년 4월7일 Vertex pharma가 3개 타겟에 대해 Elektrofi의 기술을 적용하는 목적의(인수되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Halozyme) 선급금 $15mn을 지불(마일스톤 등 비공개)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도 재건성과 효능에 대해 농축하지 않은 의약품 대비 동등함을 in vivo 수준까지 확인하였고, 향후 학술논문에서의 데이터 공개와 파트너십 계약 체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파트너십과의 공동 개발도 순항 중

유한양행과 공동개발 중인 IVL3021(Semaglutide) 1개월 제형은 '25년 말 GLP Tox 시험을 완료하였으므로, '26년 내 1상 IND 신청 및 '26년 6월 ADA 학회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피스홀딩스가 Semaglutide의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므로, 유한양행과의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베링거인겔하임과도 비공개 펩타이드 물질에 대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이 순항 중으로, 2H25에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한 첫번째 후보 제형 평가 후, '25년 11월 추가 물질의 개발을 의뢰 받아 그 제형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3월 말 경 전달한 상태이다. 2Q26 내 평가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면 3Q26에 본계약을 체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대웅제약 및 위더스제약과 공동개발 중인 IVL3001 (Finasteride, 탈모치료제)은 호주/한국 2상 진입을 준비 중, 종근당과 공동개발 중인 IVL3003(donepezil, 월1회 치매치료제)은 '26년 4월 AAN(미국신경학회)에서 P1 결과 발표 및 연내 임상 종료 예정이다. 종근당은 국내 pivotal 임상을 계획 중이다.

CDMO 사업 확대, 제조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금까지 기대 가능

동사는 오송에 EU-GMP 등급의 DrugFluidic 시설을 구축하였다. '26년 글로벌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연 규모 예상)이다.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04월 14일 | 기업분석

대한항공 (003490)

1Q26 Re: 단기 실적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때

BUY (유지)

목표주가(12M)	32,000원
현재주가(4.13)	23,9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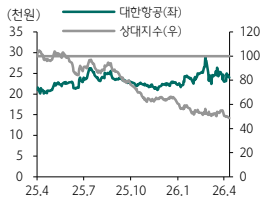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08.62
52주 최고/최저(원)	28,950/20,150
시가총액(십억원)	8,818.9
시가총액비중(%)	0.18
발행주식수(천주)	368,220.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106.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7.0
외국인지분율(%)	19.49
주요주주 지분율(%)	
한진칼 외 28 인	27.06
국민연금공단	7.0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5,491.9	26,428.6
영업이익(십억원)	1,369.1	1,992.1
순이익(십억원)	820.0	1,265.6
EPS(원)	2,020	3,121
BPS(원)	30,584	33,03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870.7	25,225.5	27,128.2	27,821.3
영업이익	2,110.2	1,113.6	159.6	2,068.8
세전이익	1,836.2	823.5	(825.3)	1,100.2
순이익	1,317.3	779.7	(526.0)	707.8
EPS	3,567	2,111	(1,424)	1,917
증감율	24.16	(40.82)	적전	흑전
PER	6.34	10.68	(16.82)	12.49
PBR	0.80	0.76	0.85	0.81
EV/EBITDA	5.48	6.51	8.09	4.93
ROE	13.17	7.28	(4.92)	6.65
BPS	28,356	29,659	28,235	29,404
DPS	750	0	750	75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분기 서프라이즈, 전 부문 호실적 기록

(별도 기준) 대한항공의 1분기 매출액은 14% (YoY) 증가한 4조 5,151억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5,169억원을 기록하며 당사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여객/화물/항공우주 모두 좋았다. 국제선 여객은 일본/중국 노선 수요 호조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환승 수요가 흡수되며 동남아를 제외한 전 노선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국제선 ASK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으나 RPK가 4% (YoY) 증가하며 탑승률이 88.5%까지 상향되었고, 여객 운임도 3% (YoY) 상승한 128원/km이었다. 화물 매출도 4% (YoY) 증가한 1조 906억원을 기록했다. 공급/수송량이 각각 2% (YoY) 씩 증가했고, 화물 운임도 2% 상승한 525원/km을 기록했다. 또한 항공우주 매출액은 전자전기 매출이 인식되며 87% (YoY) 증가한 2,522억원을 기록했고, 기타 매출도 공군 2호기 개조 사업 매출액/영업이익이 일시 반영되며 전년 1분기 대비 2,300억원 증가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3월부터 항공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신기재 도입으로 오히려 YoY 연료비가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전반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보다는 매출 증대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녹록치 않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녹록치 않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 대비 2배 수준까지 상승했고, 2분기 매출로 인식될 항공권은 3월 이전 발권된 티켓 비중이 높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3월 말 기준 선수금 부채 규모는 연말 대비 9,500억원 증가했다. 2분기 대한항공은 연결/별도 모두 적자일 가능성이 높고, 3분기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큰 폭으로 하향했다. (별도 기준) 대한항공의 2026년 매출액은 여객/화물 운임 인상과 항공우주 사업부 성장성(+28%)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 증가한 18조 4,700억원, 영업이익은 6,950억원(영업이익률 3.8%, -55% (YoY))으로 전망한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만 된다면 주가는 정상화된 유가 수준을 선반영 할 것

다만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내에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ASP를 높여갈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이고, Cash Cow인 화물 사업도 수요가 견조할 예정이다. 항공우주 사업부도 방산 신규 수주에 기반하여 높은 성장률을 기대 중이다. 2027년 이후, 항공유 가격 정상화를 가정한 EPS/BPS에 Target Multiple인 11배/1.2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32,000원,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만 가시화 된다면 주가는 정상화된 유가 수준을 선반영 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04월 1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티앤엘 (340570)

핵심 고객사 재고조정 끝, 지역 및 고객사 확대 수혜

Not Rated

현재주가(4.13) **57,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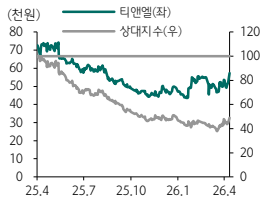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99.84
52주 최고/최저(원)	74,200/43,550
시가총액(십억원)	465.7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8,12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
외국인지분율(%)	12.80
주요주주 지분율(%)	
최윤소 외 9 인	42.7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90	205
영업이익(십억원)	56	61
순이익(십억원)	48	51
EPS(원)	5,893	6,287
BPS(원)	30,135	35,49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2	115	175	164
영업이익	24	31	57	46
세전이익	26	33	62	48
순이익	21	27	46	38
EPS	2,598	3,376	5,710	4,684
증감율	7.8	29.9	69.1	(18.0)
PER	13.9	11.8	11.7	10.5
PBR	2.7	2.5	3.1	1.9
EV/EBITDA	9.9	8.3	7.7	6.1
ROE	19.9	21.2	27.1	18.9
BPS	13,281	16,170	21,323	25,326
DPS	450	550	750	1,50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핵심 고객사 재고조정 완료, 2Q26부터 출하 정상화 및 지역 확대 전망

작년 매출 부진의 원인이었던 핵심 고객사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며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된다. 티앤엘은 고기능성 소재 전문기업으로 하이드로콜로이드를 비롯해 창상피복재, 마이크로니들, 정형외과용 고정재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작년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이며, 미국 대형 생활용품 기업 C사에 피인수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H사향 하이드로콜로이드 OEM 매출이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H사와 티앤엘은 미국, 유럽 지역 하이드로콜로이드 상호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해 회사의 대표 제품인 여드름 패치는 티앤엘이 턴키로 완제품을 납품한다. H사 여드름 패치 매출의 60%는 미국에서 발생하며, 해당 제품은 작년 미국에서 15초에 한 장씩 팔렸으며 올해 4월 구글트렌드 지표 100pt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티앤엘 매출 부진의 원인이었던 H사의 재고조정은 2월부로 마무리되어, 3월부터 전국 창상피복재 수출액이 YoY로 회복되었다. 2분기부터 회복되는 H사 미국 물량을 바탕으로 회사는 연간 20% 성장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예정된 H사의 중국,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진출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작용할 것이다.

신규 고객사 유치를 통해 고객 기반 다변화 및 외형 성장 기대

글로벌 경쟁사의 여드름 패치 ODM 편입과 유럽 글로벌 화장품 회사와 마이크로니들 제품 계약이 가시화되며 티앤엘의 고객 기반 다변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티앤엘은 글로벌 기업의 N브랜드 여드름 패치를 국내 물량에 한해 ODM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업이 자체 생산을 중단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글로벌 물량 전체에 대한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이다. 3월 N브랜드의 대만 물량 초도 매출이 발생했으며,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 물량도 자체생산에서 티앤엘 위탁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약 2년 전부터 유럽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마이크로니들 제품 생산을 논의해왔는데, 올해는 계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해당 기업 한국법인과 소통했는데, 최근 본사와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미국에서 H사 여드름 패치 제품으로 쌓아온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객사 다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2026년 티앤엘은 매출 2,071억원(YoY+26%), 영업이익 590억원(YoY+27%)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티앤엘의 시가총액은 약 4,700억원이다.

2026년 4월 14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 장비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4월 13일

쏠리드(050890)
BUY | TP 20,000원 | CP 17,35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93,800원

이노와이어리스(073490)
BUY | TP 60,000원 | CP 47,8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50,000원 | CP 27,75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28,000원 | CP 15,80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상향) | CP 16,90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120,000원 | CP 89,2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42,85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6,70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광통신 붐보다 훨씬 더 큰 5G SA와 6G 랠리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통신장비 업제들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미국 엔비디아 광투자 증대로 루멘텀 주가가 크게 오른 탓이 기장 크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광통신보다 훨씬 시장이 큰 5G SA와 6G 투자가 곧 개시될 것이며 이에 대한 주가 반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올해 연말부터 5G CAPEX 증대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광통신장비에 이어 국내 후발 무선 통신장비 업체들 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신장비 주가 상승 사이클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2018~2020년 통신장비 주가 상승 폭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 높은 시가총액 형성이 예상되므로 조정 시마다 통신장비주 비중 확대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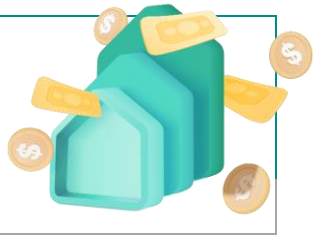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재료를 감안하면 통신장비 대장주 상승 폭이 아직은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벌써부터 통신장비주 상승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데 아직은 주가 초기 상승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단순 테마성 상승이 아닌 본질적인 업황 개선에 따른 장기 빅사이클 출현이기 때문이다. 단기 미진한 실적 성과를 지적하는데 과거에도 통신장비 업체 주가는 1~2년 이후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빌딩/코어 장비 업체들의 경우엔 더욱 그랬다. 실적은 늦게 좋아지지만 주가는 빠르게 쫓아가는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2027~2028년 통신장비주 실적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2019년 KMW, 2022년 쏠리드가 보여주었던 실적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2021~2023년 당시 HFR/쏠리드를 제외하면 미국 투자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2027~2028년엔 버라이즌/AT&T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집중 수혜가 예상되며 국내의 경우엔 2019년 수준의 매출 달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8년은 물론이고 2027년 국내 통신장비 업종 합산 영업이익이 2019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특히 아직 국내 시장 개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광통신에 이어 큰 시장인 무선 시장이 개화된다는 점에서 아직 큰 주가 파동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아직 업종 평균 PBR이 4배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 밴드, 해외 사례로 볼 때 아직은 대다수 장비 업체가 올해 주가 상승률 이상의 향후 오름 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높은 업체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선 국내 무선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 희망을 걸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아웃소싱 업체들의 주가 상승 폭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RFHIC/KMW/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2027~2028년 실적 추정치 및 국내외 경쟁사 시가총액 수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최근 후발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갭도 크게 축소되었다. 진정한 5G SA/6G 수혜주인 선발 무선장비 업체 비중을 크게 늘릴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단기 변동성 심화, 장기 방향성 견고



건설 Weekly | 2026.4.14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1.0%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GS건설과 DL이앤씨, 삼성E&A를 매수한 반면, 현대건설을 매도했다. 외인은 대우건설을 매수, 나머지 건설주를 전반적으로 매도했다. 휴전 소식 이후 재건 기대감에 따라 중동EPC가 가능한 건설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7으로 한주 만에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2주 연속 상승(+0.04%), 전세가는 43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58주 연속 상승(+0.07%), 전세가는 59주 연속 상승했다(+0.14%). 서울 매매가는 63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60주 연속 상승(+0.16%)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3주 연속 보합, 기타지방은 2주 연속 상승했다(+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36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2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5%).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12%), 부산(+0.01%), 대전(+0.01%) 상승, 인천 보합, 대구(-0.01%), 광주(-0.06%)가 하락했다.
-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예고했다. 사우디는 손상됐던 서-동 파이프라인(총 700만b/d)를 복구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원유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WTI는 재차 100달러를 상회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겠지만 최종 결과는 전쟁의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 종료 이후 O&G 재건은 예정된 수순이다. 단기 변동성은 심하지만, 장기 방향성은 명확하다.
- 중동 재건과 원전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비중동 에너지 재편 등 중장기적 수혜 기대감은 유효하다. 반면 자재 수급 및 가격에 따른 단기 추정치 하향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1분기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비용은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회사별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수급 이슈로 인한 공기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이 반영될 여지는 존재한다. 전반적인 공사비의 상승은 원가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건설 업황 회복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 건설 대형주들의 1분기 실적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진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중동 현장은 멈춘 현장은 거의 없고, 자재는 우회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은 사업주와 협의 중이다. 국내 건축 자재도 아직까지 수급적인 영향은 없으며, 장기화될 경우 일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원가 조정 현실화 계획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1~2% 수준으로 보인다.
- 원전 관련해서는 1분기 특이사항은 없다. 2분기에 이벤트가 몰려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페르미 마타도르 FEED가 4월말에 종료되며, 2분기 내 EPC 계약 구조를 협상할 예정이다. 미국 홀텍 SMR도 2분기 중으로 수주계약이 있을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체코원전 계약서를 2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규원전(2기) 입찰 준비를 위한 팀코리아 입찰이 2분기에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가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
-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이란 분쟁과 관련하여 결과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시나리오로 볼 경우, 종전 및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재건 및 이란개발 테마로 삼성E&A, GS건설, DL이앤씨가 수혜다. 단기 휴전으로 유가가 회복될 경우, 자재 가격 및 수급 우려 해소로 국내 주택주가 수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자재 가격, 수급 우려, 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추천종목은 없다.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1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미국 AI 인프라(IT 하드웨어)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 기대

불안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

- AI 인프라(하드웨어)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을 기대한다. 4월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한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은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가 4월 미주Pick에서 주장한 것처럼 시장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엔비디아의 서버랙을 제조하는 대만의 ODM 업체들은 견조한 월간 매출을 발표하고 있다. 5일 홍하이(폭스콘)는 AI 클라우드 제품과 AI 서버용 랙의 강력한 수요를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2분기는 미국 IT 기업들의 비수기이지만, 견조한 수요 덕분에 AI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안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 엔비디아 GB 계열 AI 서버 랙 공급망에 속한 대만 ODM 업체들은 견조한 월간 매출을 발표했다. 위스트론, 홍하이, 콴타 컴퓨터의 3월 매출은 3,330억 대만 달러(YoY +117.7%), 8,037억 대만 달러(YoY +45.6%), 3,628억 대만 달러(YoY +67.1%) 등이다. 1분기 매출은 위스트론 8,463억 대만 달러(YoY +144.3%), 홍하이 2조 1,296억 대만 달러(YoY +29.7%), 콴타 컴퓨터 8,092억 대만 달러(YoY +66.6%)다. 합산 기준 3사의 3월 매출은 1조 4,996억 대만 달러(YoY +67.1%), 1분기 매출은 3조 7,851억 대만 달러(YoY +53%)다.
- 엔비디아 연동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스트론의 최근 월 매출은 가파른 YoY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5개월 연속 세 자릿수 YoY 성장률). 위스트론은 2026년 AI 서버가 회사 매출의 약 70%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 플랫폼 노출도를 70~80% 수준으로 가정하면 엔비디아 제품 수요의 영향력은 50% 초중반 수준이다. 콴타 컴퓨터는 2025년 기준 전체 매출 중 서버향 매출은 70% 수준인데, 2026년 AI 서버향 매출 비중 목표를 전체 서버 판매의 80%로 제시했다. 보수적으로 70%를 가정하면 전체 매출 대비 AI 서버 매출은 49% 수준으로 잡을 수 있다. ASIC향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70%를 가정해 추정한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35~40% 수준이다.
- 홍하이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 두 회사에 비해 엔비디아 제품의 영향력은 적으나, 절대 판매량이 많은 기업이다. 홍하이는 2025년 AI 서버 매출을 1조 대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2025년 홍하이의 연간 매출이 8조 1,031억 대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AI 서버향 매출은 12% 수준이다. 홍하이는 3월과 1분기 견조한 실적은 AI 클라우드 관련 제품의 판매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2분기 가이던스에선 ICT 산업의 전통적인 비수기이지만 AI 랙 판매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 TSMC도 견조한 3월 매출과 1분기 매출을 발표했다는 점도 AI 하드웨어 호실적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TSMC의 3월 매출액은 4,152억 대만 달러(YoY +45.2%)고,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조 1,341억 대만 달러(YoY +35.1%)다. 이번 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TSMC는 견조한 AI용 제품 생산 수요와 전망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에 대해선 수요 대비 타이트한 상황을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 대만 IT 기업들의 월/분기 매출과 회사의 코멘트 등은 AI 서버와 랙 관련 제품 수요가 여전히 강한 국면에 있음을 시사한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AI 인프라 하드웨어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거시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만들 수 있는 증시 변동성은 AI 하드웨어 기업들에는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8,195	-4.6%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290	-5.7%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6,125	3.0%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330	56.4%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8.76	3.9%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94	24.7%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36.88	28.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33	18.5%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13	206,000	201,000	-2.4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040,000	1.27%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SDI (006400.KS)	4/13	481,000	477,500	-0.73%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 전량 현금화 시 최대 11조원 유입 가능 • 현금 유입으로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49,550	-3.22%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13	106,800	105,900	-0.84%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동국제강 (460860.KS)	4/13	10,410	10,740	3.17%	•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철근시장 개선에 따른 봉형강 수익성 개선 기대 • 중국산 후판 수입 규제에 따른 판매 확대와 후판 ASP 인상 기대
KSS해운 (044450.KS)	4/13	12,640	12,000	-5.06%	• 장기운송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높아 운임 변동성 대비 이익 가시성 높아 • 계약 갱신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이 확고해진 상황에서의 보다 제고된 주주환원 기대
리노공업 (058470.KQ)	4/13	111,800	113,400	1.43%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대성하이텍 (129920.KQ)	4/13	11,000	11,550	5.00%	• 21년 이후 다수의 이스라엘 기업으로 방산 정밀 부품을 공급 •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수요 및 재고 확충 필요성 확대로 기존 대비 수요 확대 기대
우리넷 (115440.KQ)	4/13	13,000	16,900	30.00%	• 과기부 주도로 5G-SA 망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백본망 전송장비 구축 수요 발생 전망 • 피지컬 AI로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전송망 장비 신규/교체 수요 성장 예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24%	-3.60%p	+62.90%	+26.5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040,000	1.27%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49,550	-3.22%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93,800	2.07%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01,000	20.22%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01,500	1.77%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9,300	8.17%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6,600	10.36%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0,000	8.27%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92,500	16.88%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4,800	4.62%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62,500	12.67%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61,500	23.17%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70%	-6.99%p	+31.11%	-5.2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E--/--,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E $111b/13%/15%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40%, 2월 0.60%)	▪ 한국 3월 PPI(전년비)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3월 -16.3)	▪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잠정치) (E --/--, 이전치 -0.2%/1.60%) ▪ 미국 4월 3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이전치 1.60%)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